# 나주시,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 매주 목요일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

##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극복 기여…심리검사·상담 제공

나주시 빛가람동은 작년에 이어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빛가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나경아)는 작년 하반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우울,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 또는 센터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향유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심리검사, 맞춤형 건강·복지 상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복지사업을 홍보하는 복지 사랑방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실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에 위치해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신건강 전문의가 상주해 맞춤형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황덕연 빛가람동장은 "정신건강 상담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산부·직장인들의 생활 속 스트레스 해소, 우울 관리 등 맞춤형 정신 건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 소장…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

담양군은 담양군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분재기(分財記)란 전통 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로,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의 수결로 마무리한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분재기 1매와 인장 1점으로, 1711년 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한 걸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분재기는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과 재산 분배 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중요자료이며, 특히 장남의 몫과 함께 태어난 순서대로 딸·아들 구별 없이 상속 재산을 기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장흥고씨 양진재파 관계자는 "장흥고씨 양진재파의 종가 복원 작업을 위해 집안의 자료를 수집·정리하던 중 분재기를 포함한 다수 유물 등을 발견하였다"면서 "분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종가 복원 작업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담양의 18세기를 알려주는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고씨 양진재파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때 담양 추성관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으로 활약한 '충렬공 제봉 고경명'의 후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군, 반부패·청렴 다짐 위한 청렴서약 캠페인 실시

## 공익중심 업무수행·부당이익추구 타파·직위 권한남용 금지

곡성군은 21일까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전 직원은 금번 캠페인을 통해 공익중심 업무수행, 부당이익추구 타파, 직위 이용 권한남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위반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낭독하여 청렴한 직무수행 이행을 다짐하게 된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서약서 작성을 밑거름 삼아 청렴·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골든벨, 아침청렴방송 등 5개분야 32개의 청렴시책을 더욱 심도있게 활성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캠페인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힘찬 발걸음

## 1년 성과 정리·분석

구례군은 2020년 구례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를  본격적 운영한 1년 성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알찬 도시재생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 4월에 개소하여 비상근체제로 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부터 전문가인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2명을 구성하여 상근체계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중심시가지형/537억원)과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사업(4억원)의 집수리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협력체계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각종 교육 홍보와 신청 접수를 지원하고 제4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마을활동가 환경치유사를 운영하여 야생화골목길 꽃식재 및 환경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지속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컨설팅 및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과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녹색 사랑방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였다.

구례=박진호 기자

# 화순농업인대학, 내달 17일까지 신입생 모집

화순군이 화순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제14기 화순군농업인대학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농업인 대학은 복숭아과, 아열대작물과 2개 과정이 개설된다. 과정당 30명씩 총 60명을 모집하며 2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2021년 1월 13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화순군 거주자다. 과정별 해당 작목과 관련 있는 농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최근 2년 이내 농업인대학 수료자는 예비교육생으로 분류된다.

제14기 화순군농업인대학은 3월에 개강해 11월까지 각 20여 회 강의를 진행된다. 재배기술, 환경관리, 마케팅과 유통 등 단계별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화순=박순철 기자